

윤병세, 딸 장학금·탈세 의혹 등 도덕성 논란

황교안, 17개월간 16억 보수 전관예우 아닌가 서남수, 5·16 등 과거사 답변 회피...정회 소동

이들째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는 28일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이후, 법무청에서 17개월동안 근무하면서 16억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 퇴임 직전 재산이 8억~13억원이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돌아올 때는 재산이 1년 반 만에 2배가 늘었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사회냐"고 주장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지난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두드러기'(담파진)로 제2국민역(면제) 관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역 면제 논란도 불거졌으며 삼성X파일 사건과 종교적 편향 문제,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북 핵 문제 해법을 묻는 한편 윤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 아파트 취득세 탈루 의혹,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문제, 공직 퇴임 후 외교부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윤 후보자는 북핵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두-트랙 전략 방침을 밝혔다.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에 대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는 한편,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외교부 개편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윤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외교 관련 자문을 맡았던 경력을 두고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는 사실상 외교부를 무력화 하는 이번 개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외교부 개편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한 적 없다. 사전에 미리 들은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5·16 등 과거사 인식 질문에 대한 서 내정자의 답변 회피가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

느냐, 혁명으로 보느냐"고 묻자 서 내정자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책과 추궁이 잇따르자 서 내정자는 "그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이 왜 없었나. 헌법 정신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 얘기했던 사안인데 내정자가 답변을 못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대해 밀고 추천해야 하는가"라며 제동을 요청, 인사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병관, 군사구역 땅 매입 2년 뒤 해제돼 80배 차이

민주당, 軍정보 이용 의혹 전방위 공세

민주당 등 야당은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28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질 검증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 일각에서도 옹호론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안구백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지난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인근의 경기고양군 일산읍에 토지 476㎡를 부인 명의로 샀는데 2년 뒤 9사단 작전 지역이 변경되면서 이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구입 당시 땅값은 5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1991년에 약 4300만원 가량에 수용돼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부대 옆에 있던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김 내정자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무기중개업체 고문경력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이제 그만 용퇴하시길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하나씩 터져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내정자가 군사구역 땅을 매입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도 나왔다"면서 "그간의 20여개 의혹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꽉 막힌' 국정... 해법 내놓을까

차대통령, 어제 하루 공식일정 없이 정국구상 집중

정부조직법·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일째인 지난달 28일 공식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바로 전날까지 '취임 의교'를 하고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특별한 일정을 소화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형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현안들을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식을 전후해 살인적인 강행군이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유를 갖고 현안을 챙길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종 현안뿐 아니라 마무리되지 않은 내부 인선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도 두루 청취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극적 타협'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

도 나온다.

이날 오후 이종현 청와대 정부수석 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수석부대표를 예방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중개상 재직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론 일각에서도 잇따라 옹호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나마시킬 경우 기존에 구상한 안보라인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지난 22일 한미연합사 등을 방문할 당시 김 내정자를 동행시킨 면을 보면 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국제경찰 등 권력기관장 인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안보 라인 위기가 현실화됐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새 정부가 안정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권력기관장 인선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왼쪽), 민주통합당 이춘석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총리, 여·야 방문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부탁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진통을 겪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정부가 출범을 잘해야 하는데 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표께서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정부조직법은 거

의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 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 총리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도 협조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성공하면 야당도 같이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조직

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기만 해도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도 "우리가 어제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총리도)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야 협상 교착과 관련,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대통령 인사 비판 장관 내정자 모두 '4+2 조건'에 해당 병역특혜·탈세·논문표절·전관예우 등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총리를 비롯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한 장관들이 전부 '4+2' 조건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4+2'는 인사청문회의 4대 쟁점인 '병역특혜,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전관예우' 의혹을 지칭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 정홍원 총리가 2년간 전관예우로 받은 6억7천만원 중 1억원을 기부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과연 이 많은 전관예우를 받은 분들이 총리처럼 자기 수익의 약 7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할지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황 내정자는 17개월에 16억원, 한달에 1억원씩 전관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을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 언론, 국민들이 보기에 절대 국방장관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시한 양보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톤 큰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결국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요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통해 북 핵 문제의 정치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이동지도사	3.7(목)오전	•한자의 기본원리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부수해설·사자소학 •명심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소학·대학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총장)	3.6(수)오전	•논어·맹자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망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자격취득기회

▶수강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중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부근)
E메일 : hanja-exam@hanmail.net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임동, 투룸, 소리틀

〈토지구함〉

- 지역 : 광안동 도천동 6층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지역

〈모델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922천 매도가 8억5천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6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안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철거공도도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문류창고부지 : 정성동 흥평면, 정성2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38949.kr

대인통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23-1772 1772 011-602-2532
(광주중앙신분점, 대인통 상가전문부동산)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1억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